



동방신기·블랙핑크·박효신 (사진왼쪽부터)

무술년 가요계 기상도 '맑음'

# 가수들 광폭행보 예고

SM·YG·JYP 대형 기획사 중요한 분기점

아이돌 일변도 아닌 다양한 장르 가수들 러시

지난해 중국 발 한한령으로 주춤했던 가요계가 2018년 황금개띠해를 맞아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드는 분위기와 한류시장이 일본에서 재점화되는 동시에 동남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등 다양해지면서 광폭 행보가 예상된다

### ◇ SM·YG·JYP

올해는 이른바 3대 가요기획사로 통하는 SM·YG·JYP엔터테인먼트에게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정치·경제 등의 문제로 대중음악 시장 역시 요동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만큼 성장을 위해 소속 가수들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팀은 전역돌이 된 듀오 동방신기다.

원조 한류그룹으로 통하는 만큼 올해 신곡을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SM에게는 천군만마와 같다. 지난해 4연속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빅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YG는 안팎으로 불안 요소가 많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요계를 대표하는 빅뱅과 2NE1 이후 대형 스타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NE1는 해체한 상황이고, 회사 수익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빅뱅은 멤버들의 군입대로 당분간 완전체 활동이 불가하다.

안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아심작이었던 JTBC의 '믹스나인' 부진 역시 어렵다. 엔터 외에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자회사 YG플러스 역시 실패치 않았다.

하지만 70년생 개띠인 안현석 프로듀서가 연초부터 소속 그룹들의 연이은 활약을 예고해 기대감을 부추긴다. 빅뱅을 이을 보이 그룹 아이콘 워너가 연이어 출격하며 인기 걸그룹으로

등극한 블랙핑크 역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여기에 방에담이 주축인 신에 보이 그룹이 출격하고, 새로운 걸그룹 데뷔 역시 예정됐다.

작년 '트와이스'로 대박을 친 JYP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스타 워너걸스와 미쓰에이가 해체됐지만, 6연속 히트 흥행을 기록한 트와이스가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 게다가 트와이스는 일본 내 한류 재점화의 핵이라 현지에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3대 기획사를 쫓고 있는 FNC는 팀의 주력어인 AOA가 안팎의 상황으로 주춤하지만, 올해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씨엔블루' 'FI인클랜' 등 회사의 주축 가수와 허니스트 등 신인 팀들의 활동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회사인 FNC에드컬처는 창작 뮤지컬 레드북의 공동 제작사로 참여하는 등 공연계로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다.

### ◇ 방탄소년단 & 워너원 올해도 뜨거운 활약 예고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핫한 그룹 '워너원'은 올해도 대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ABC 방송의 유명 신년맞이 쇼에 출연하며 올해 포문을 화려하게 연 방탄소년단은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 말미따나 K팝 고위 가치를 지키면서, 한국어 노래로 세계인과 교감하며 팬층을 더 넓혀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의 심장을 두드린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더 인기를 얻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가요계 관전포인트다.

'빌보드 200' 7위라는 K팝 역대 최고 순위 기록,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s)에서 K팝 그룹 최초 단독 공연 등의 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의 올해 목표는 '스타디움(약 3~5만석 규모 공연장) 투어' '빌보드' '핫100'에서 톱 10에 진입, '빌보드 200'에서 1 위다.

국내에 신드롬 광풍을 일으킨 워너원은 올해 더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를 결성된 이 팀은 올해 말 해체되는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 1월부터 음원시장 치열

가요계가 전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1월부터 음원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돌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의 러시가 이어져 반갑다는 분위기다.

초반 승기는 박효신이 잡았다. 본인의 자작곡인 '겨울소리'로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

특히 가요계 대다수 러닝타임인 3~4분의 곡이 아닌 6분5초를 넘는 다소 긴 호흡의 곡으로 감상하는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3년여만에 돌아오는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의 새 앨범도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하는 등 완성도 역시 탄탄하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음원강자로 통하는 인디 듀오 '볼빨간 사춘기'와 지난해 '가시나'를 통해 솔로 여가수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선미도 잇따라 신곡을 내놓는다.

보컬그룹 2AM 조권과 그룹 2PM 우영의 솔로 활동 블랙비 인피니트, 오마이걸 등 아이돌 그룹들의 신보도 예정됐다.

/뉴시스

##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오늘부터 경기도 10개 시·군 314.6km 달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경기도를 비춘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3일 오전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지역에서 오는 4일부터 성화 봉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인천에 도착한 성화는 제주, 경상, 전라 충청 등 65일간 전국 곳곳을 돌았다.

경기지역에서는 4일 여주, 평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수원(5일), 용인(6일), 광주(7일), 성남(8일), 고양(18일), 파주(19일), 연천·의정부(20일) 등 10개 시·군에서 성화 봉송이 이뤄진다. 10~16일 서울과 인천을 거친다.

도내 봉송구간은 314.6km에 달하고 677명의 주자가 참여한다.

성화는 여주 코카콜라 공장, 평택 동남복지타운을 거쳐 5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를 시작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지나 화성행궁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성화는 수원 화성(華城)을



밝게 비춘 뒤 6일 용인 수지구 보건소, 은솔공원, 한국민속촌, 용인시청,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7일에는 광주 곤지암 리조트, 광주 시청, 남한산성, 팔당조방대를 찾은 8일 성남 분당 운동공원으로 달린다. 성화봉송 주자와 이벤트도 눈길을 끌 예정이다.

/뉴시스

5일 수원에서는 배우 류준열과 삼성 축구단 염기훈 선수,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등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6일 용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홍보대사인 타이러 라쉬씨가 성화를 든다.

화성행궁에서는 성화 도착을 기념, 장용영 수위시식과 궁중무용공연, 남창동 줄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용인 경전철을 이용해 성화가 이동하고 파주 임진강 아이스하키, DMZ 자전거 봉송 등도 있다.

또 성화봉송 프리젠틱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위시볼 공연, KT의 5G 비보잉 퍼포먼스' 등도 마련된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평창을 밝힐 성화가 65일간의 여정을 지나 경기지역의 문화, 역사를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 이세돌 vs 커제... 새해 벽두 빅매치

13일 제주 해비치호텔

이세돌 9단이 '중국랭킹 1위' 커제 9단과 제주도에 새해 벽두 빅매치를 벌인다.

3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이 13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해비치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한국과 중국의 간판 기사인 이세돌·커제 9단은 알파고와 직접 맞선 '유이(唯二)'한 기사로 유명하다.

알파고 대결 이후 둘 간의 첫 만남이어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세돌 9단은 2016년 3월 구글 알파고와 '딥마인드 쉐런지매치'를 벌여 1승 4패를, 커제 9단은 지난해 5월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알파고에게 3전 전패를 기록했다. 이세돌 9단은 커제 9단에게 값을 빛이 많다.

두 기사는 2015년 11월 처음 만나 2016년 11월 마지막 대국을 벌였다. 공식 맞대결은 1년 1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지만 이세돌 9단은 공식 전적에서 3승 10패, 승률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이 13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해비치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3.08%로 커제 9단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이9단은 2016년 제2회 몽백합배 결승5연기 최종국에서 반집패하며 우승을 놓쳤고, 제1회 농심신라면배 우승 결정국에서 패하며 중국에 우승컵을 넘겨줬다.

2015~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4강에서는 2년 연속 만나 커제 9단에게 결승 티켓을 헌납했다. 특히 세계대회 결승 등 큰 경기에서 여러 차례 패한 바되어 이

번에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 제한시간은 각자 40분에 초읽기 1분 1회씩이 주어진다.

맞대결 승자에게는 3000만원과 현대자동차 소형 SUV(이세돌 9단 승리 시 '코나', 커제 9단 승리 시 중국 현지 모델 '엔시노')가 보너스로 제공되며 패자는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